

“체육특기자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비”

김승환 교육감, 연교대 도입검토에 “도내 단위학교들 흐름 정확히 읽고 준비해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경인지역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최저 학력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세대와 고려대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시 최저 학력기준을 ‘상위 70% 이내’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서울경인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최저학력기준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입학은 학생들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유명대학에서 입도선 매식으로 체육특기자를 싸늘이해 가는 풍토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학생들도 자기 수준에 맞게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

이어 “체육특기자 전형 외에도 대학들이 입시전형에 변화를 줄 경우 이를 단위학교에 잘 전달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 해체하고 최저임금 1만원 보장하리”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조직위원회는 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노동절 127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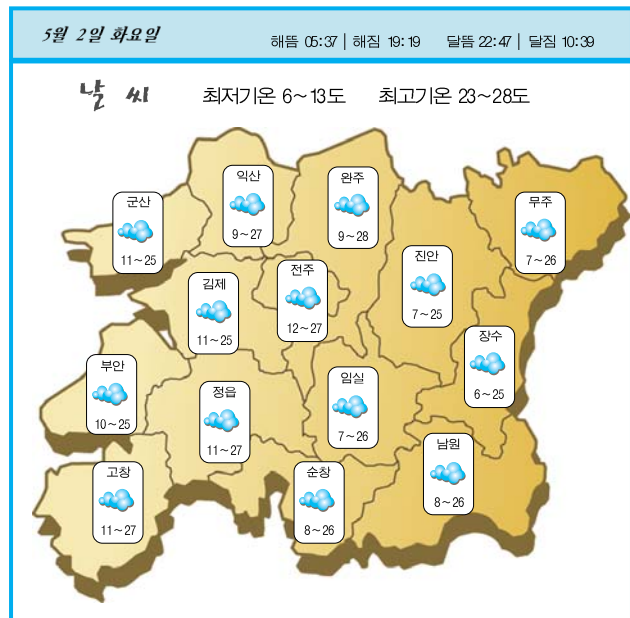
한편 김 교육감은 오는 26~27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전북교육청이 상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직은 부교육감 1

명을 제외한 전원이 교육국은 국장 포함 전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인 전문직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한 적이 있다. 잘못된 것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권이 없

다”면서 “이번에 우리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안건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상정한 것은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혜은 기자



전주시-국제영화제 조직위-영국항공 상호홍보 업무협약 체결

전주가 세계3위의 대형항공사인 영국항공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마누엘 알버레즈 영국항공 한국지사장, 이충직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해외홍보 강화를 위한 전주시-국제영화제 조직위-영국항공 간 상호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와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 문화임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세계 60개국 635개 도시에 취항하는 영국항공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주시 홍보영상과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단편영화 5편을 상영키로 약속했다.

특히, 영국항공 44년 역사상 특정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주시 홍보영상 상영은 영국항공 역사상 최초로 지원되는 파격적인 홍보 프로모션이다. 시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 기간 중 영국항공의 홍보영상(CF)을 상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주한 영국문화원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통해 이번 공동홍보 프로모션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해외홍보를 위해 SNS(www.facebook.com/globaljeonju)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김민근기자

전주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추가 접수

20일까지 '2017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가구 6억4400만원 투입 도배와 장판·지붕개량 등 주택 개보수 지원

전주시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17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가구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올해 6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배와 장판, 지붕개량, 창호교체, 부엌,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신청접수 대상은 장애인 및 고령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이다.

출입문 확대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바닥 개선, 동작감지센서 등기구 설치, 욕조 높이조절 등 장애인의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내 편의·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가구는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주거복지과(063-281-5246)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선정된 20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80가구에 대한 주택 보수가 완료돼 전체 선정가구 대

비 약 3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 기준 단독주택에서 장애인인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시는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추가 집수를 받을 계획이며, 즉시 보수가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상시 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긴급복구에 나선 방침이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이번 추가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가구 중 편의·안전시설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도교육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 정책 일환으로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 운영한다.

청렴마일리지는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청렴교육 이수, 청렴강사활동, 청렴동아리, 언론보도, 부패행위 신고 등에 대해 마일리지를 쌓는 방식이다.

청렴 마일리지는 기관과 개인별로 별도 적립하며 우수 기관에겐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교육지원청은 자체 감사 면제대상 선정과정에서 반영한다.

또 우수 개인은 마일리지 50점 이상 적립자 중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최고 점자는 교육감 표창을 한다.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혜은 기자

전북 우리말 가꿈이 출범 본격 활동

1일 전주대학교는 2017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말 가꿈이”는 비합리적인 한글 문화 전파와 한글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공헌활동 동아리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5년 1기를 시

작으로 올해 3기가 출범했는데, 우리말 가꿈이 3기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말 가꿈이는 오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도내 곳곳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앞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김민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의 시작입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